

“번뇌가 여래의 씨앗이니 이곳이 바로 불국토”

제3강 '유마경'의 가르침 통광 스님

빛고을 광주에서 '경전의 숲에서 단비를 만나다'를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 중인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세 번째 강좌가 11월 10일 광주 KT정보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칠불암 회주 통광 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유마경>의 불이사상을 중심으로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유마경>은 원래 이름을 비말라키르티 수트라(Vimalakirti Sutra)라고 하며 <반야경>에 이어 나타난 초기 대승경전 중에 그 성립이 오래된 경전의 하나입니다. <유마경>은 대장경의 방등부에 속합니다. 대승경전 가운데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기 어려운 경전을 방등부에 놓습니다. <유마경>은 내용상으로 살펴보면 <금강경>보다 차원이 높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유마경>은 현존하는 법어 원본은 없으나 티베트, 한역 3본이 있고 이 가운데 구마라집이 번역한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유마힐(維摩詰)이란 비말라키르티의 음역으로서 바이살리(비야리)의 부호 이름입니다. 그는 이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재가의 신자로 불교의 정수를 체득하고, 청정한 행위를 실천하며, 가난한 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불량한 자에게는 훈계를 주어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는 재가신자의 이상적인 인물이며, 이 유마힐을 모델로 하여 <반야경>에 서술된 공(空) 사상을 실천적으로 체득하려는 대승보살의 실천도를 강조하고, 세속에 있어서 불도를 실천하고 완성하게 됨을 설시(說示)하려는 것이 이경의 내용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여 지느니라'는 말을 비롯해 종교적 영향이 많으며 특히 중국에서 널리 읽혔고 초기 선종에서 매우 중요시 됐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유마경>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유마경>은 재가의 거사인 유마힐을 중심인물로 내세워 출가 중심주의의 형식적인 부파불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승불교의 진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세속에 있으면서도 대승의 보살도를 성취해 출가자와 동일한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마거사는 방편으로 병이 들었는데 문병 오는 사람들에게 설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러한 사정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갈 것을 명하였지만, 일찍이 유마거사로부터 힐난을 들은 적이 있는 제자들은 병문안 가는 것을 적극 사양했습니다. 유마거사는 비록 세속에 살고 있지만 대승의 가르침을 자각했기 때문에 쉽게 제자들과 보살들이 그를 상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명을 받아 유마거사

의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유형의 상대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대화를 합니다. 유마거사는 기존의 출가중심의 불교에 대한 비판을 통해 당시 불교의 문제점을 비판,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마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마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현실의 국토가 불국토라는 것입니다. 불국토라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불국토라고 합니다.

둘째, 자비정신의 실천입니다. 문질품(問疾品)에서 "어리석음과 탐욕, 성내는 마음으로부터 내 병이 생겼습니다. 문수보살이 거사님의 병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하고 물으니, 어리석음과 탐욕, 성내는 마음으로부터 내 병이 생겼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병에 걸려 있으므로 나도 병들었습니다. 만일 모든 중생들의 병이 나오면, 그 때 내 병도 나올 것입니다"라는 유마거사의 말은 중생과 고통을 함께하는 보살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번뇌에 쌓인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보살입니다. 5 무간죄, 지옥, 아귀, 축생의 3악도, 탐·진·치 3독에 몸을 던지면서 이에 속박됨이 없는 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셋째는 평등의 불이(不二)사상의 실천입니다. 출가·재가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으로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보리와 번뇌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며, 정도와 예도가 둘이 아니라는 불이 사상을 통해 절대 평등의 경지에 들어가야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실상의 진리는 형상이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공의 경지입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깨달음은 언어 문자를 초월해서 있습니다.

넷째, 중생들에게 모두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유마거사는 현실의 인간이 비록 번뇌를 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체의 번뇌가 곧 여래의 종성이라고 하여 불법은 번뇌 가운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모든 존재는 차별적인 것이 아닌 평등한 존재이다'라는 것이 특징이자 <유마경>의 핵심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불이(不二), 둘이 아닌 도리를 광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둘이 아니고 현상계와 분체계가 둘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고, 전체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둘이 아닌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칠불암 회주 통광 스님이 2010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세 번째 강좌에 나서 <유마경> 강좌를 하고 있다. 통광 스님은 "유마거사는 출가 중심주의의 형식적인 부파불교를 비판하고 대승불교의 진의를 드러낸 보살"이라며 자기중심의 수행에만 치우치지 말고 중생 교화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마경>은 대승불교 진의 드러낸 경전 "세간을 버리고 따른 출세간을 찾지 말라"

<유마경>은 자기중심적인 수행에만 치우치지 말고 중생 속에 뛰어들어서 중생을 교화하는데 소홀히 하지 말라는데 그 본뜻이 들어 있습니다.

번뇌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이 좌선

<유마경>에는 10대 제자 사리불존자가 유마거사에게 활재를 당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사리불 존자에게 중도적 좌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유마힐에게 가서 문병하러 가니, 사리불이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내가 옛적에 숲속 나무 밑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그 때 유마힐이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사리불이여 반드시 앉는 것이 좌선이 아닙니다. 무릇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삼계에 몸과 뜻을 나타내지 않는 것 그것이 좌선이며, 일어나지 않고 모든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좌선이며, 도법을 버리지 않고 범부의 일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좌선이며, 마음을 안에도 머무르지 않고 밖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 그것이 좌선이며, 모든 견해에 동요가 되지 않고, 37도도품을 두는 것 그것이 좌선이며, 번뇌를 끊

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이 좌선입니다. 만일 능히 이와 같이 좌선하는 자만이 부처님이 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좌선하면 가만히 앉아서 '이땀' 하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여기 <유마경>에서는 좌선을 중도적 관점에서 제시했습니다.

간계종에서는 간화선을 위주로 수행을 하는데 간화선 지침서가 <서장(書狀)>이라는 책입니다. <서장>에도 보면 선을 중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광사 중창주인 불일보조국사가 공부할 적에 마지막 깨침을 깨치는데 송나라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서장>을 보다가 어느 구절을 보고 깨쳤습니다. 그 구절은 "선은 고요한데도 있지 않고 또한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아니하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일상 생활하는 인연처에도 있지 않고, 사랑분별(思量分別)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은 고요한 곳과 시끄러운 곳과 인연에 응하는 곳과 사랑분별하는 것을 버리지 말고 참구해야 한다. 참구해서 홀연히 눈이 열리면 비로소 우리가 일상생활 온갖 것들이 내 집안의 일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

습니다.

이것도 <유마경>에서 사리불 존자가 유마거사에게 법문 들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늘 중도적인 이런 삶, 세간을 버리고 따로 출세간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울라에게도 출가의 중도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난존자에게는 어떤 것을 불성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부처님이 아난존자에게 말하기를 유마거사에게 문병을 가라하니 못가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적에 세존께서 몸에 조금 병이 있어서 병이 나오려면 유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아난이 발우를 들고 대바라문에게 가서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 때에 유마거사가 말을 하기를 "어째서 이른 아침에 발우를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고 아난은 거사에게 답하기를 "세존께서 몸에 조금 병이 있어서 마땅히 유유를 써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유유 탁발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마거사가 다시 말하기를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아난존자여, 여래의 몸은 금강체라, 금강불괴심이라 모든 악을 끊고 온갖 선이 다 모여져 있는데 어찌 병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리하지 말고 어서 가십시오. 아난이여 여래를 비방하지 말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추악한 말을 듣게 하지 말고 대위덕, 제천과 타방의 정도보살들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선이 모였는데 어찌 병이 있겠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세상에 머물렀다가 떠났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지, 부처님께서는 금강불괴이신데 생멸심이나 육안으로 보서는 안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유마거사의 어떤 것이 불이법문이나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 없이 가만히 앉은 것, 그 경지에 들어가야 진짜 <유마경>의 종지를 알 수 있고, 유마의 본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道)는 언어도단言語道斷)하고 심행처멸(心行處滅)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행하는 길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말과 생각으로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어도단하고 심행처멸이라고 하는 것을 부사의(不思議)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말로 의논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부사의입니다. 그리고 또 <유마경> 자체를 정명경이라고 하지만 부사의해탈경(不思議解脫經)이라고 합니다. 유마경의 대의를 잘 이해하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빌면서 오늘 이것으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機秘傳 天機秘傳 天機秘傳

辛卯年 辛卯年 辛卯年

365일 매일 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훑히 볼 수 있는 대정미법!

4×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문고판/칼라제본/436쪽/정가 10,000원

百超律歷學堂 (02) 3667-4446
010-3813-4443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